

“욕망, 긍정과 부정의 경계는 절제”



밝은사람들, 제5회 학술연찬회

6월 14일 '욕망'을 주제로 한 밝은사람들 제5회 학술연찬회 모습. 좌로부터 사회자 김종욱 교수(동국대), 정준영 교수(서울 불교대학원대학교),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이덕진 교수(창원전문대), 박찬국 교수(서울대), 권석만 교수(서울대), 우희종 교수(서울대).

'욕망(欲望/慾望): [명사]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하고자 탐함. 또는 그런 마음'

사전적 의미의 욕망은 삼독 중 탐심(貪心)의 뇌우(亂)로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무엇에 부족을 느끼는가에 따라 욕망은 괴로움의 단초가 아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욕망에 대한 고통과 원동력의 경계는 무엇일까?

6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밝은사람들(소장 박찬욱)이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5회 학술연찬회가 그 해답을 제시했다.

초기불교: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유식불교: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선불교: 이덕진 교수(창원전문대), 서양철학: 박찬국 교수(서울대), 심리학: 권석만 교수(서울대), 생물학: 우희종 교수(서울대)가 각 분야별 '욕망'을 소개했다. 이들이 선보인 '욕망'을 ▲욕망의 기원 ▲욕망의 기준 ▲욕망의 조절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초기불교

정준영 교수는 욕망의 기원에 대해 "욕망하는 대상이 있는 것 같다. 자기보존의 욕망 즉 생리적 욕망과 취락하는 자아관념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기불교에서 욕망의 기준은 "탐욕과 같애 등을 중상 시키느냐, 즐기느냐가 기준이 된다"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대념

처경> <숫타니파타> 등을 인용해 사성제, 팔정도 등 부처님 가르침이 욕망의 조절법이라고 설명했다.

유식불교

한자경 교수는 욕망의 기원을 "탐진의 욕망은 말나식의 욕망으로 의식표층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말했다. "반면에 아뢰아식에서

일어나는 욕망은 바람직한 원망"이라고 한 한 교수는 이것을 '원(願)'으로 표현했다. 욕망의 기준은 12연기의 환멸문인가 유전문인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 경계를 무명과 지혜로 표현했다. 한자경 교수는 "탐진에 의한 욕망은 아집과 아상에 의한 것으로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무명의 극복이 필요하다"며, "동체대비를 깨닫는 것이 욕망 아닌 자비를 얻는 방법"이라 말했다.

선불교

이덕진 교수는 "선에서는 욕망이란 단어 자체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선은 문제를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며, "주인공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욕망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 속에서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마음공부를 권했다.

서양철학

박찬국 교수(서양철학)는 니체

의 견해를 인용해 "인간의 가장 근본적 욕망은 자기를 고양시키려는 욕망이다. 인간은 단순히 자기보존에 그칠 수 없는 존재"라 규정했다. 박 교수는 "긍정적 욕망은 이성적 욕망"이라며 에리히 프롬의 견해를 빌어 설명했다. 욕망의 조절방법으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욕망제어를 위해 학문을 강조했다"면서 실천적 지혜로서 중용을 강조했다.

심리학

권석만 교수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과 상호작용한 것을 욕망의 기원으로 설명했다. 그는 "생명 유지를 위한 욕구(결핍욕구)가 다양하게 진화된 것이 성장 욕구"라며, "모든 생명은 살기위해 욕망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욕망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훈련과 자기조절 등의 방법으로 욕망 조절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생물학

우희종 교수는 "욕망은 생리학적 것에 바탕하지만 그 자체에서 항상 재생산된다"고 전제했다. "욕망도 관계성 속에 변화한다"는 것이 우 교수의 견해다. 우희종 교수는 "관계에 깨어있거나 열려있거나 머무르지 않는 것이 욕망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물학적으로는 욕망은 약하면 조절 가능하다"고 말해 청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우희종 교수는 "욕망의 조절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며, "욕망 조절보다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밝은사람들의 이번 학술연찬회는 자료집 **先先** 등 무수한 화제를 뿌리며 공연장 좌석을 꽉 채운 채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좌장 김종욱 교수(동국대)는 "하반기에는 자아를 중심으로 학술연찬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밝은사람들의 계속된 실현은 '일일 시호일(日日是好日)'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최초 '조선불교통사' 완역 발간

동국대출판부, 12월 전집 발간 예정

故 이능화 선생의 <조선불교통사>는 20세기 한국불교 최고의 명저다. 불교사는 물론 문학과 철학 등 한국불교 관련 연구에 필수자료인 책은 상·중·하 3권 2책으로 구성됐다. 2300여쪽 방대한 분량과 함께 순환문체로 쓰인 탓에 높은 학술적 가치만큼이나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웠다. 하지만 2008년 12월이면 누구나 쉽게 읽게 될 전망이다.

동국대출판부 후신인 동국대미디어센터(센터장 윤재웅 교수)는 6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선불교통사> 전11권의 12월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조선불교통사>를 두고 민족사, 역경원 등 여러 곳이 번역을 시도했지만 번역이 난해하고 양이 방대해 완역한 곳은 없었다. 하지만 학술적 가치가 높은 탓에 2002년 한국학진흥재단(이하 학진) 지정과제로 공모됐었다. 2002년 당시 서울대, 고려대, 전남대와 함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지원했다.

프로젝트 공모 및 번역 주역인 김진우 연구교수(불교문화연구원)는 "다른 과제로 학진이 공모 예정이었는데, <조선불교통사> 번역사업이 눈에 띄었다. 서울대 등 타학교가 준비하는 데 <조선불교통사>만큼은 반드시 불교학 전문가인 동국대가 해야겠다는 바람에 <조선불교통사>로 과제를 변경해 신청했다"고 회고했다.

결국 김 연구교수의 발원처럼 <조



'조선불교통사' 완역의 주인공 동국대 불문연의 김진우 연구교수, 한상길 연구교수(좌로부터).

선불교통사' 발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해원, 이하 불문연)에서 이뤄졌다.

김 연구교수와 함께 콤비를 이루며 <조선불교통사> 완역을 이룬 한상길 연구교수(불교문화연구원)는 "한국불교사"를 강의하면서 그동안 마땅한 교재가 없었다. 한국불교 개척서인 <조선불교통사> 완역으로 이제 한서를 덮었다"고 말했다.

책은 직역을 기본으로 번역했다. 통일윤문, 원문 대조를 거쳐 현재 한 국불교사 거장인 김영태 명예교수(동국대)가 감수중이다.

김윤길 팀장(미디어센터 출판사업팀)은 "국고와 교비 보조로 소장 학자들이 이룬 성과"라고 자평한 뒤, "하반기 '이백품제'는 불교사의 사건들을 서사구조로 정리한 것으로 방송, 문학 등에 불교문화콘텐츠로 활용도가 높다"고 소개했다.

조동섭 기자

세계와 호흡하는 한국불교학 계기

동국대 BK21, 국제불교학 협회 참가

동국대 BK21 세계화시대불교학 교육연구단(단장 김용표)은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국제불교학 협회에서 여는 국제학술회에 참가할 '세계불교학의 조류와 한국불교'를 주제로 한 세미나 개최를 위해 단기 해외연수를 떠난다. 6월 23-28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국제불교학협회 국제학술회는 세계 유수 대학 및 연구소 연구자 500여 명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다. 동국대에서는 김용표 교수가 '원효와 그의 통합적 불교 철학 이상'을, 우재선

교수가 '논리학과 인식론'에 대해 발표한다.

6월 29일 필라델피아 원 연구소(The Won Institute)에서 BK21교육단이 개최하는 국제학술회는 동국대 연수참가 학생들이 학술발표를 한다.

김용표 교수는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BK21 교육단 연구자들은 현재 어떤 학술적 과제들이 세계적인 이슈인지를 알고, 한국 불교 및 불교학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108배, 청소년 정서에 긍정적 영향 끼쳐"

장인진 사회복지사, 파라미터 정기세미나서 발표

108배가 신행을 넘어 건강행위로 주목받는 요즘, 절을 통한 호흡 명상이 청소년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6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파라미터청소년문화연구원(파라미터청소년협

회장 도후) 정기세미나에서 장인진 사회복지사(자양사회복지관)는 '호흡명상을 통한 청소년 지도사례'를 발표했다.

자양사회복지관은 정규 중·고교 교육과정 외 다양한 분야에 흥미를 갖는 학생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명상교육을 특성화한 나

란타 대안학교를 운영 중이다. 장인진 사회복지사는 "2007년 10월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의 회로 호흡명상과 청소년 정서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소개했다. 실험 방법은 정견 스님을 초청해 절을 통한 호흡명상법을 지도하고, 부모와 함께 6주간 매일 108배 수련을 하도록 했다. 장 사회복지사

는 "108배 호흡명상 결과 실험전 ADHD(주의·집중력 결핍 장애) 진단 학생 모두가 호전됐다"고 말했다. 실험 결과는 병적인 증상 호전에 그치지 않았다. 장인진 사회복지사는 "호흡명상 이후 사소한 오프로 인한 다툼, 욕설 및 폭언이 줄었다. 스트레스로부터 감정 통제력이 증가하는 등 자아존중감까지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나란타 대안학교의 호흡명상 사례는 2008년 1월 15일 '생로병사의 비밀' 226회 신년특집 '당신의

뇌를 깨워라!' 편에 방영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남선 교사(구암중)가 '3분 명상지도'를 통해 ▲몸이 안 좋아서 자애 명상 ▲몸에 대한 축복 명상 ▲배움 명상 ▲자기 존엄 명상 ▲위로 명상 등 청소년 지도를 위한 다양한 명상법을 소개했다. 김연삼 원장(금강승선관무경기분원)은 '명상과 학습 메커니즘'에서 "위파사나의 알아차림(aw) 수련을 이용해 인성개발은 물론 학습 향상도 도모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재)한중원 한국불교 대승 조계종 입종안내

입종을 환영합니다.

한국불교대승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중추종단으로 거듭나고자 대승불교의 정신으로 불기 2552년 4월 15일 창종 하였습니다. 불법홍포의 일선에서 함께하실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중정 성수(聖壽)

원로원장 관각(觀覺)	총회의장 경공(經供)
총무원장 법광(法光)	사정원장 성해(性海)

◆ 입종 구비서류

- (1) 입종신청서
- (2) 주민등록 등본 1통
- (3) 호적초본 1통
- (4) 여권용 사진 4매
- (5) 승려증빙서류 (전 종단 승려증, 사찰 등록증 사본)
- (6) 사찰 전경사진 (내외)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외동 699-5번지 / 010-4457-6556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탠드 마이크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를

주문제작 (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YuKo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 220,000원 (1인용 보급형), 580,000원 (1인용 고급형), 480,000원 (2인용 보급형), 680,000원 (2인용 고급형)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유코 음향 연구소

소장 김민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경명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